



류현진 MLB 개막일 노린다

1월 6~20일 제주에서 톱토스·핑지 투구 훈련
2월 경남서 개인훈련 계획… 불펜피칭 예정
“어깨·팔꿈치 등 몸 상태 지난해보다 더 좋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류현진(35·사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은 4월 1일 실전 등판이 가능한 상태로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류현진의 전담 트레이너로 일하는 장세홍 트레이닝 코치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류현진의 몸 상태는 지난해보다 좋다. 2월에는 불펜 피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선수 노조와의 단체협약(CBA)을 개정하지 못하고 직장폐쇄를 택한 터라, ‘토론토 구단 소속’인 장세홍 코치도 류현진의 훈련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한다.

장 코치는 훈련 일정을 관리하고, 몸 상태를 점검하는 수준으로만 류현진을 돕고 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류현진은 차분하게 애일 중이다. 일단 ‘4월 1일’을 2022년 개막일로 가정하고,



훈련 일정을 짰다.

메이저리그 노사가 2월 중 CBA 개정에 합의하면, 구단은 스프링캠프 기간을 줄이고 ‘4월 1일 개막’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장 코치는 “지금도 불펜피칭이 가능한 상태다. 직장폐쇄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서두르지 않을 뿐”이라며 “어깨, 팔꿈치 상태는 정말 좋다. 미국 현지 상황을 보며 조정을 하겠지만, 당분간 류현진 선수는 4월 1일 등판을 기준으로 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9일 입국해 짧은 휴식을 취한 류현진은 김광수 전 한화 투수가 운영하는 54K 스포츠에서 훈련하며 체력을 키웠다.

1월 6일부터 20일까지는 제주도 강창학야구장에서 장민재, 김기탁(이상 한화 이글스), 이태양(SSG 랜더스)과 실의 훈련을 했다.

류현진은 제주 훈련 기간에 톱토스와 핑지에서 18.44m(투구판에서 홈플레이트까지의 거리) 투구 등을 했다.

제주 캠프 기간 불펜피칭을 한 차례 할 계획이었지만, 직장폐쇄가 길어질 수 있어서 불펜피칭 시작 시점을 조금 늦추기로 했다.

류현진은 2월 3일부터 경남 거제 하청스포츠타운에서 개인 훈련을 한다. 류현진이 프로 생활을 시작한 ‘친정팀’ 한화 이글스가 스프링캠프를 치르는 장소다. 류현진은 거제에서는 불펜피칭 등 투구 훈련 시간도 늘려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날오는 골키퍼와 공격수 26일(현지시간) 카메룬 뒤편 올림피아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말리와 적도기니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16강 경기에서 말리의 골키퍼와 기니 공격수간 공 다툼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황희찬, EPL 울버햄프턴 완전 이적

2026년까지 동행… 지난해 8월 임대이적 뒤 4골 맹활약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26·사진)이 임대로 뛰면서 성공적인 반시즌을 보낸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로 완전 이적했다.

울버햄프턴은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황희찬을 완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황희찬의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다.

지난해 8월 독일 RB라이프치히에서 울버햄프턴으로 임대된 뒤 5개월 만의 완전 이적이다. 당시 울버햄프턴은 황희찬을 임대 영입하며 계약서에 차후 완전 영입을 가능케 하는 옵션을 달았다.

울버햄프턴은 이적료를 밝히지 않았으나, 1670만 유로(약 226억)를 라이프치히에 지급한 것으로 현

지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황희찬은 울버햄프턴으로 임대 이적한 뒤 프리미어리그(EPL) 첫 6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뛰어난 득점력을 뽐냈다.

금방 주전으로 도약한 황희찬은 7라운드 뉴캐슬전에서는 멀티골을 폭발했고, 9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도 골맛을 봤다.

황희찬은 구단 자체 ‘9월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울버햄프턴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황희찬의 완전 영입을 알리면서 ‘긴 여정을 함께합시다’라는 한글 문구와 함께 계약 만료 시점인 ‘2026년’을 강조하는 영상을 올렸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도루 하위권’ LG·KIA 올 시즌 뛰는 야구로 급반등 기대

프로야구 LG 트윈스 류지현(51) 감독과 KIA 타이거즈 김중국(49) 감독이 올시즌 주춧돌을 살린 ‘발야구’를 펼칠 전망이다.

LG는 자유계약선수(FA) 박해민을 영입해 홍창기와 더불어 KBO리그 최강의 테이블 세터를 꾸렸다.

KIA는 프레스턴 터커와 결별하고 소크라테스 브리토를 데려왔다. 브리토는 공·수·주에서 만점 활약을 펼쳐 2017년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한 로저 버나디나와 비슷한 유형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던 2015~

2018년 4년 연속 도루 1위를 차지한 박해민은 LG의 기동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LG는 지난 시즌 팀 도루 7위(92개)에 머물렀다. 출루 기제인 1번 타자 홍창기가 가장 많은 23개를 훔쳤다.

여기에 지난해 36개를 기록하는 등 데뷔 이래 연평균 40개 도루를 찍은 박해민이 가세하면서 LG의 뛰는 야구는 활짝 날개를 펴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해민은 작전 수행 능력도 뛰어나 홍창기와 함께 출루하면 상대 팀은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일성으로 공격적인 주루를 선수들에게 주문한 KIA 김중국 감독도 동계 훈련과 시범경기에서 1, 2번 낙점에 심혈을 기울일 참이다.

브리토는 군에 입대한 최원준 대신 1번 타자 중견수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중장거리형 타자인 브리토는 지난 시즌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23개를 포함해 마이너리그 통산 도루 180개를 남겼다.

KIA는 2021년 팀 도루 9위(73개)로 바닥을 맴돌았다.

브리토가 최원준의 공백을 맡으며 배우고, 브리토를 도와 발야구를 이끌 2번 타자가 새로 등장해야 김중국 감독의 뛰는 야구 구상이 힘을 받는다.

SSG에서 방출당한 후 테스트를 거쳐 KIA에 입단한 고종욱도 뛰는 야구에 힘을 보탠다. 연합뉴스

“규칙적으로 운동한 장애인 20%”

문체부 2021년 생활체육조사

장애인 5명 중 4명은 지난해 규칙적인 생활체육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

육회가 27일 발표한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로 2020년(24.2%) 대비 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운동하는 장소는 야외

등산로나 공원이 39.7%로 가장 높았다. 체육시설(14.5%), 집안(14%)은 뒤를 이었다. 집안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대비 5.8%포인트 증가했다. 생활체육활동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66.2%는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를 하고 있으며 자전거(6.9%), 근력운동(6.7%), 맨손체조(4.5%)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수축상
CONGRATULAT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문성욱

(농업회사법인 오라(유) 대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방선문축제위원회

위원장 문명숙 외 위원 일동

승축진
CONGRATULATIONS

제주경찰청 경정



변대식

(본회 자문위원)

제주경찰청 경정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원주변씨 제주도 청년회

회장 변도현 외 회원 일동

승축진
CONGRATULATIONS

서기관



문경중

서기관(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평문씨 남제공파전국종문화회 회장 문두홍 외 종문 일동
남평문씨 화성 이파 종친회 회장 문대진 외 종친 일동
남평문씨 철머리파 종친회 회장 문광주 외 종친 일동
남평문씨 윤남굴파 종친회 회장 문덕만 외 종친 일동
남평문씨 매촌파 종친회 회장 문상훈 외 종친 일동

승축진
CONGRATULATIONS

서기관



송창현

서기관(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원피엔지(주)

대표이사 고영수 외 직원 일동